

元雜劇「東坡夢」의 度脫構造

-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

金光永**

<目 次>

1. 서론
2. 轉移儀禮
3. 統合儀禮
4. 결론

1. 서론

원잡극 「東坡夢」(정식 극명은 「花間四友東坡夢」)은 元代 前期 작가인 吳昌齡의 작품으로, 宋代 王安石과의 정치투쟁에서 실패한 蘇東坡(1036-1101)가 失意한 文人의 신분으로 등장하여, 정치적 再起를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同窓故友'인 佛印禪師(1032-1098)를 還俗시키고자 모략을 꾸몄으나, 결국에는 佛法에 귀의한다는 종교극이다. 이러한 「東坡夢」의 내용은 소동파와 佛印의 문답을 기록한 『東坡問答錄』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다.¹⁾

「東坡夢」은 원잡극에서 상당히 유행하였던 도탈극이다. 度脫이라는 용어는 본시 불교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濟度·解脫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修行을 이룬 禪師나 神仙이 도탈자의 신분으로서 수행이 낮은 피도탈자를 得道·解脫시켜, 인간의 번뇌와 生死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원잡극에서 도탈

* 본 연구는 2016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교수

1) 陳宗樞 著, 『佛教與戲劇藝術』, 天津人民出版社, 1992, 141쪽.

극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神仙道化劇을 주로 연상하는데, 이것은 전체 도탈극 중에서 도교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도교도탈극이 불교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도탈극에 비해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며,²⁾ 본 논문의 대상인 「東坡夢」은 불교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도탈극이다. 그런데 도탈극이란 용어는 일본의 青木正兒(1887-1964)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그는 자신의 『元人雜劇序說』에서 明代 朱權이 지은 『太和正音譜』 중의 雜劇十二科를 참고하여 원대의 잡극을 분류하였으며, 신선도화극 종류의 작품들을 도탈극과 謫仙投胎劇 두 가지로 나누었다.³⁾ 그리고 신선도화극 중에는 도교도탈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도탈극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후에는 도탈극의 의미가 확대되어, 仙佛이나 佛道와 인연이 있는 凡人이 神仙이 되거나 成佛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을 도탈극이라고 불렀다.⁴⁾

원잡극 중의 도탈극은 도탈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품 중에는 도탈자가 피도탈자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도탈시키는 도탈과정이 중점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작품 중의 피도탈자는 도탈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힘든 苦痛 등의 試鍊을 겪고 나서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지닌 피도탈자로 재탄생된다. 바로 도탈극의 핵심은 피도탈자의 재탄생이다. 다만 피도탈자가 재탄생되기 위해서는 무수한 고통과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통과의례라는 용어는 독일 출신의 네덜란드계 민속학자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약한 A 반 겐넵(Arnold van Gennep)이 1909년 『통과의례』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탄생과 결혼 및 죽음 등의 중요한 시기에, 사회 내에서의 신분 변화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면서 일정한 의례를 행하며, 아울러 다른 영역을 통과하거나 국왕이나 족장의 취임 및 여러 종교 행사에도 반드시 일정한 의례를 행하는데, 그는 이러한 과정 중에 행하여지는 의

2) 일례로 논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신선도탈극에는 「升仙夢」「城南柳」「岳陽樓」「黃梁夢」「任風子」「胡蝶夢」「金童玉女」「竹葉舟」「劉行首」「玩江亭」「藍采和」「誤入桃源」「邯鄲店」 등 13편이 있고, 불교도탈극으로는 「度柳翠」「忍字記」「東坡夢」「猿聽經」 등 4편이 있다. 溫小騰, 「淺析元雜劇中的度脫劇」, 『大慶師範學院學報』第26卷 第4期, 2006.

3) 青木正兒 著, 隋樹森譯, 『元人雜劇序說』, 臺灣, 長安出版社, 1976, 32쪽.

4) 溫小騰, 「淺析元雜劇中的度脫劇」, 『大慶師範學院學報』第26卷 第4期, 2006.

례를 통과의례라고 명명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半文明的인 정신세계에서는 모든 행위들이 神聖함과 철저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⁵⁾

젠넵은 여러 종족과 민족의 통과의를 분석하면서 이들 통과의례가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분리의례-전이의례(과도의례)-통합의례가 바로 그것이다.⁶⁾ 그런데 젠넵의 이러한 통과의례 구조는 원잡극 중 도탈극의 도탈구조와 상당히 흡사하다. 먼저 통과의례와 도탈극은 모두 본질적으로 종교적 신성함과 결부되어 있다. 다음으로 통과의례와 도탈극은 그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비슷한 성격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통과의례와 도탈극은 통과의례의 대상자나 도탈극의 피도탈자가 모두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생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東坡夢』에는 분리의례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東坡夢』의 핵심 피도탈자가 역사적 실존인물인 소동파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불교도탈극인 『度柳翠』나 『忍字記』 및 『猿聽經』의 피도탈자는 모두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닌 허구적 인물로서, 神聖한 聖界에서 잘못을 범하여 俗界로 분리되었지만, 『東坡夢』의 피도탈자 소동파는 실존 인물로서 聖界에서 俗界로의 분리를 설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은 통과의례 중의 분리의례적 성격을 지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坡夢』의 핵심적 도탈구조는 피도탈자의 재탄생이라는 점에서 통과의례적 구조와 그 핵심에 있어서 매우 비슷하다. 이러한 점에서 도탈극 『東坡夢』의 도탈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고에서는 통과의례에 대해 서양에서 이미 이룩한 학문적 성과를 사용하고자 한다.

젠넵의 통과의례 이론은 인류학과 민속학 및 종교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현대 종교학자로 유명한 M.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자신의 『성과 속』 및 『신화·꿈·신비』라는 저서에서 통과의례 이론을 종교론적으로 재해석하였고,⁷⁾ 상징인류학을 창안한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제의에서 연극으

5) A. 반 젠넵 著, 金京秀 譯, 『통과의례』, 서울, 을유출판사, 1994, 29쪽.

6) 상계서, 40쪽.

7) M. 엘리아데 저,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로』라는 저서에서 통과이레 이론을 연극학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켰으며,⁸⁾ 프랑스의 시몬느 비에른느(Simone Vierne)는 『통과제외와 문학』이라는 저서에서 통과이레 이론을 종교와 문학에 적용하며 해석하였다.⁹⁾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의 도탈구조를 살피고, 아울러 그러한 도탈구조 속에 담긴 연극적·종교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전이의레

통과의레 중의 전이의레는 통과의레의 참여자가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가장 격식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여겨진다.¹⁰⁾ 곧 전이의레는 통과의레의 참여자가 의례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수많은 고통 등의 시련을 겪고 극복하여 재탄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그리하여 「東坡夢」을 비롯한 모든 불교도탈극, 일례로 「度柳翠」나 「忍字記」 및 「猿聽經」에서도 전이의례의 과정은 극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제1절에서부터 마지막 제4절까지, 곧 극 구성의 대부분이 전이의례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성과 속』 및 『제의에서 연극으로』에서 전이의례의 핵심적 성격을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드와 빅터 터너의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만약 신가입자가 그 유아적이고 세속적이며 부활없는 生에서는 사멸하고 새롭게 聖化된 실존으로 재생한다면, 그는 또한 인식과 知를 가능케 하는 어떤 존재 양식으로 재생한다는 것이다. 신가입자는 오로지 새로 태어난 자 혹은 부활한 자 일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자, 신비를 알고 형이상적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이기도 하다.가입식은 정신적인 성숙을 의미한다.어떤 민족은 후보자를 매장하거나 새로 판 무덤에 눕혀 둔다. 혹은 나뭇가지로 덮고 죽은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눕혀두기도 한

M. 엘리야드 저, 강읍섭 역, 『신화·꿈·신비』, 도서출판 숲, 2006.

8) 빅터 터너 지음, 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6.

9) 시몬느 비에른느 지음, 이재실 옮김, 『통과제외와 문학』, 문학동네, 1996.

10) 시몬느 비에른느 지음, 이재실 옮김, 『통과제외와 문학』, 문학동네, 1996, 20쪽.

다.¹¹⁾

전이의 단계 동안에 제의의 주체들은 일종의 애매성의 시기와 영역, 즉 어떤 결과로 생긴 사회적인 지위나 문화적인 상태의 속성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일종의 사회적인 중간상태를 통과하게 된다.¹²⁾

위에서 엘리아데는 통과의례 중의 어떤 참여자가 자신의 유아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에서, 새롭게 聖化된 실존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전이의례의 핵심적 성격이며, 이러한 전이의례의 과정 중에 통과의례의 참여자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빅터 터너는 위에서 전이의례의 단계에서는 의례의 주체들이 아직 재탄생되지 못한, 곧 일종의 사회적인 중간 단계에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전이의례적 성격이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원문을 살피기 전에, 「東坡夢」에서 핵심적 피도탈자인 소동파에 대한 評傳을 쓴 林語堂의 『蘇東坡評傳』 일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제1절에서 제4절까지 무수한 좌절과 고통 등의 시련을 겪고서, 마침내 새로운 종교적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죽을 번하다 겨우 살아나온 후 동파는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며,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궁리하기 시작했다. 한편 신앙심도 점점 돈독해졌다. 「安國寺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깨끗이 새출발 하기 위해서 佛道에 헌심함이 좋지 않겠는가?이러한 종교적 몰입에의 충동과는 상반되게, 동파의 의식 저 깊은 곳에 깔려 있는 유교적 가르침은 그를 또 다른 방향으로 잡아끌었다.동파는 虛空無我的 경지에 이르러 모든 인간적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佛家的 목표와, 그리고 동파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보다 현실적인 유가적 교훈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을 겪었다.¹³⁾

위의 책에서 임어당은 소동파가 黃州로 귀양당한 이후, 유교적 의식과 불교적

11) M. 엘리아데 저,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172-173쪽.

12) 빅터 터너 지음, 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6, 21쪽.

13) 林語堂 지음, 陳英熙 옮김, 『蘇東坡評傳』, 지식산업사, 1969, 270-272쪽.

목표 사이에서 매우 큰 갈등을 겪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東坡夢」 중 소동파의 내적 심리 갈등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왜냐 하면 「東坡夢」의 시대 배경 또한 소동파가 黃州로 귀양당하는 시기이며, 극 중 소동파의 인물형상 또한 유교적 형상에서 불교적 형상으로 변하는 것을 도탈의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東坡夢」은 유교적 사유와 불교적 사유의 충돌과 변화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교적 사유와 불교적 사유의 충돌이 통과례라는 도탈구조를 통하여 어떻게 전개 되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소동파의 유교적 사유가 커다란 고통과 시련을 겪는 부분을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소동파가 外로 분장하고 등장) 저는 과거에 급제한 이래 자주 발탁되었고, 관직은 端明殿大學士를 제수받았지요. 지금은 王安石이 조정에 있으면서, 정권을 장악하여 정치를 어지럽히며, 특히 靑苗法을 실시한다 하네요. 제 생각에, 이 청묘법이 시행되면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그 해로움이 끝이 없지요. 제가 자주 편지를 보내 直言하였으나, 막혀버리니 이 때문에 王安石과 저는 원수가 되었네요.제가 詩로써 大臣의 아내를 조롱했다고 말하여, 이 때문에 저는 黃州의 團練¹⁴⁾으로 귀양가네요.지금 이 潯陽驛 琵琶亭에 도착하자, 옛 친구인 賀方回가 이 곳에서 太守를 하여,歌妓 하나를 주었는데, 白樂天의 후손으로 兒名이 牡丹입니다.黃州로 가다 말을 쉴 때가 되었네요. (이 곳에는) 同窓故友인 謝端卿이 廬山의 東林寺에서 삭발하고 중이 되었지요. (그는) 修行하고 道를 닦은 지 15년이 됐건만, 禪房에서 나오지 않네요. 그 사람은 문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白牡丹을 데리고 가, 그가 破戒하고 還俗하여 白牡丹과 결혼하도록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함께 벼슬길에 나아가면, 생각컨대 王安石은 혼자 조정에 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外扮蘇東坡上) 小官自登第以來, 屢蒙擢用, 官拜 端明殿大學士. 今有王安石在朝, 當權亂政, 特舉靑苗一事. 我想這靑苗一出, 萬民不勝其苦, 爲害無窮, 小官屢次移書諫阻, 因此王安石與俺爲仇.道俺不合吟詩嘲戲大臣之妻, 以此貶小官到黃州團練.如今來到這潯陽驛琵琶亭, 有一故友乃是賀方回, 在此爲守,出一歌妓, 乃是白樂天之後, 小字牡丹.比及到黃州歇馬, 有一同窓故友謝端卿, 在廬山東林寺落

14) 지방 民兵 조직을 담당하는 관리.

發爲僧，修行辦道，一十五年，不下禪床。此人乃一代文章之士。俺如今領着白牡丹魔障此人還了俗，娶了牡丹，與小官同登仕路。量安石一人在朝，有何難處。)15)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피도탈자인 소동파는 극이 시작되자 제1절의 처음에 등장하여, 자신이 귀양당해야 하는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위에 의하면, 소동파는 靑苗法¹⁶⁾ 등 왕안석이 시행하는 소위 新法 때문에, 자신이 왕안석과 원수가 되었으며, 자신이 쓴 詩가 대신의 아내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黃州로 귀양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극 중에서 이와 같이 정치투쟁에서 패배한 소동파는 그냥 물러서지 않고, 다시 새로운 힘을 동원해 왕안석과 대항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줄 友軍으로, 소동파는 귀양가는 도중 경과한 지역인 廬山의 東林寺에서 修道生活을 하고 있는 佛印禪師(극 중의 謝端卿)를 유혹하고 권유하여 세속의 정치세계로 還俗시키고자 한다.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의 핵심 도탈 구조는 바로 이렇듯 세속적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는 소동파의 유교적 사유와 소동파의 유혹과 권유를 뿌리치며 淸淨하고 신성한 佛法의 세계에 남고자 하는 불교적 사유의 충돌과 변화이다. 극 중에서 소동파는 이러한 자신의 計策을 이루기 위해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바로 美人計의 사용이다. 곧 그는 白居易의 후손인 白牡丹¹⁷⁾을 사용하여, 불인선사를 유혹하여 자신의 정치 友軍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통과의례 중 전이의례적 관점에서 보면, 위의 인용문은 전이의례의 일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위의 극 중에서 피도탈자인 소동파가 정치투쟁의 실패와 이로 인한 귀양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커다란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 중의 전이의례적 모습은 피도탈자인 소동파가 도탈자의 신분으로 등장하는 불인선사를 만나면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나타난다. 제1절의 극 중에서 소동

15)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河北教育出版社, 1994, 3113-3114쪽.

16) 靑苗(靑苗)의 시기, 즉 곡식이 아직 여물지 않은 춘궁기에 저리로 농민에게 곡식을 대출해 주던 제도.

17) 唐宋人들은 名妓를 자주 白牡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陳宗樞 著, 『佛教與戲劇藝術』, 天津人民出版社, 1992, 141쪽.

파는 白牡丹을 데리고 불인선사를 유혹하기 위해, 불인선사에게 술을 권유하고 白牡丹과 결혼하여 자신과 함께 벼슬길에 나아가자고 권유하는데,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불인선사): 行者야, 채식 식사로 蘇學士님을 대접하렴. ……

(소동파): 그 스님께 가서 말씀드려. 술과 고기가 있으면 먹고, 술과 고기가 없으면 배타러 간다고 해! ……

(불인선사): 이렇다면, 네가 산을 내려 가 俗家에서 술 한 단지 사오고, 고기 한 덩어리 사서 소학사님을 대접해라. ……

(소동파): 牡丹아, 불인선사님께 술 한 잔 올려라.

(白牡丹이 응하며): 사부님, 이 잔 가득 드시지요.

(불인선사): 아가씨, 저는 고기 요리와 술은 못해요.

(白牡丹): 사부님이 고기 요리와 술을 모두 못하시네요.

(소동파): 師兄이 틀렸어요. ……부처님은 마음 속에 앉아 계시고, 술과 고기는 창자를 통과해 지나가지요. 실컷 드세요. 무엇이 무서워요!

(불인선사): 그렇다면, 제가 술을 먹어도 고기는 먹지 않겠어요. ……

(소동파): 목단아, 술을 내려놓아라. 師兄, 제가 이번에 온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불인선사): 무슨 일이지요?

(소동파): 오로지 師兄을 위해서지요. 오늘은 길일이니, 白牡丹을 아내로 맞이하고 저와 함께 벼슬길에 나서지요. ……

(소동파): 목단아, 스님께 깨달음의 이슬¹⁸⁾을 떨어뜨려 달라고 가거라.

(白牡丹):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님, 깨달음의 이슬을 한 방울, 목단의 두 잎에 떨어뜨려 주세요.

(불인선사): 저는 반 방울도 없어요. ((云)行者, 看素齋飯管待學士. …… (東坡云)你去與那和尚說, 有酒有肉我便吃, 無酒無肉, 我回舟中去也. …… (正末云)既然如此, 你下山去俗人家沽一壺酒, 買一方肉, 管待學士便了. …… (東坡云)牡丹, 與那佛印把一杯酒者. (旦兒應云)師父滿飲此杯. (正末云)小娘子, 貧僧葷酒不用. (旦兒云)那師父葷酒皆不用. (東坡云)吾兄差矣, ……佛在心頭坐, 酒肉穿腸過, 只管吃, 怕怎么! (正末云)既如此, 貧僧開酒不開葷. ……(東坡云)牡丹, 放下酒者, 吾兄, 我此來非爲別事. (正末云)却是爲何? (東坡云)專爲吾兄. 今日是個好日辰, 娶了牡丹, 與小官同

18) 스님의 精液을 비유하는 말.

登仕路. ……(東坡云)牡丹, 你與那和尚告菩提露去. (旦兒云)是, 曉得. 上
告我師, 和尚一點菩提露, 滴在牡丹兩葉中. (正末云)小僧半點俱無.)¹⁹⁾

위에서 피도탈자인 소동파는 도탈자인 불인선사로 하여금 佛法의 계율을 破戒하고 환속하여, 자신과 함께 관직 생활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酒肉과 미인계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소동파는 위에서 사찰의 채식으로 자신을 대접하려는 불인선사에게, 술과 고기를 주지 않으면 돌아가겠다고 협박하여 불인선사의 첫 번째 양보를 얻어낸다. 이어서 술을 먹지 않으려는 불인선사에게, 부처님은 마음 속에 있다고 말하여, 불인선사가 술을 마시겠다는 두 번째 양보를 얻어낸다. 그러나 두 번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킨 소동파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구는 성공하지 못한다. 白牡丹과 결혼하여 자신과 함께 왕안석에 대항하는 정치투쟁을 전개하자는 소동파의 권유를 백인선사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곧 소동파는 속세적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는 자신의 유가적 사유가, 청정하고 신성한 불법을 지키려는 불인선사의 불가적 사유를 이겨내지 못한 좌절의 고통을 안아야 했다.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은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인생관을 반영하고 있다.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모든 불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섯 가지 계율, 곧 五戒를 지킬 의무가 있다. 오계는 살생하지 않고(不殺生), 도둑질하지 않고(不偷盜), 사음하지 않고(不邪淫), 거짓말하지 않으며(不妄語), 술 마시지 않는 것(不飲酒)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불인선사가 위에서 白牡丹과 결혼하지 않으려는 것은 오계 중의 不邪淫을 실행하는 것이고, 소동파의 간청을 받아들여 술을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소동파의 체면을 보아 동의해 주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또한 불교의 중심교리로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을 지닌 四聖諦가 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네 가지의 근본 진리를 의미한다. 제(諦)는 진리, 진실이란 뜻이며, 그러한 진리가 신성한 것이라 하여 사성제 또는 사진제(四眞諦)라 한다. 불교의 실천적 원리를 나타내는 불타 교설의 대강(大綱)으로, 고제(苦諦)·집제(集諦)·멸제(滅諦)·도제(道諦)의 네 가지 진리를 말한

19)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河北教育出版社, 1994, 3119-3122쪽.

다. 이 중 苦諦가 가장 핵심이 되며, 현실세계의 참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범부 중생의 현실세계는 모두가 괴로움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生·老·病·死의 사고(四苦)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괴로움(愛別離苦),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괴로움(怨憎會苦),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求不得苦),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오온(五蘊)에 집착하는 괴로움(五陰盛苦) 등, 팔고(八苦) 속에서 輪回(윤회)에 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적 인생관에 의거하여 보면,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소동파의 고통은 '求不得苦'라고 여길 수 있다. 왜냐하면 소동파는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강렬한 유가적 사유를 지니고 있으나 이루지 못하고 있고, 또 정치적 再起의 수단으로 불인선사를 유혹하고 권유하지만 좌절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의 인용문은 통과외례 중 전이의례의 일반적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 보여지는 도탈 과정 중에 나타난 도탈자와 피도탈자의 양상은 상당히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도탈극의 도탈자는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 피도탈자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서서, 피도탈자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지만, 「東坡夢」의 소동파는 피도탈자이지만 극의 전반부인 이 곳에서는 도리어 도탈자인 불인선사에 뒤지지 않는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도탈극과는 달리 「東坡夢」 중의 피도탈자인 소동파가 역사적 실존 인물인데다, 더우기 역사적으로 명망이 높은 文豪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東坡夢」 중 제1절에서 불인선사를 白牧丹으로 유혹하고 권유했지만 실패한 소동파는 제2절에 이르러서는 더욱 대담한 계책을 꾸며낸다. 곧 소동파는 불인선사가 부득이하게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계책, 곧 협박용 계책을 생각해 낸다. 일반적으로 유혹과 협박은 도탈극에서 도탈자가 피도탈자를 도탈시키기 위해 전이의례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법인데,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에서는 거꾸로 피도탈자인 소동파가 도탈자인 불인선사에게 사용하고 있으니, 다른 도탈극과는 다른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며, 희극적 무대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感皇恩】行者야, 내 말 거스르지 말 것이니, 내 너에게 부탁해야 겠구나. (무릎을 꿇는다)

(행자): 사부님, 정말 창피하시겠네요.....

【采茶歌】.....(불인선사): 행자야, 귀 좀 빌려줘. (귓속말로 부탁하며, 노래) 네가 그녀와 베개를 같이하고 잠을 자 부부가 되어라. 이미 재미를 좀 봤으면, 빠지지는 말고.(퇴장)

(소동파): 牡丹야, 謝端卿이 方丈室로 갔으니, 뒤쫓아 들어가 다정히 雲雨之情을 나눌 때, 네가 「雨淋鈴」을 노래해라..... (그러면) 내가 그를 잡을 것이니, 어찌 나를 따라 환속하지 않겠니.「雲雨之情을 나눈다」.....

(소동파): 좋았어, 謝端卿, 白牡丹과 다정히 雲雨之情을 나누었지. 애들아, 등불을 키고, 方丈室 문을 열어, 그 불인선사를 잡아라.

(불인선사): 저한테 소동파가 속았네요.

(白牡丹): 정말 창피해 죽겠네!【感皇恩】你行者休違拗, 我須索把你來央及. (做跪科)(行者云)師父只當搶了臉也 【采茶歌】..... (云)行者, 將耳過來. (做耳囑科, 唱)你和他共枕同眠成連理, 早是得些滋味休要着痴迷. (下)(東坡云)牡丹, 謝端卿往方丈去了, 便趕進方丈去. 與他雲雨和諧了時, 你就唱【雨淋鈴】. 我就來拿住他, 不怕不隨我去還俗也. (做歡會科) (東坡云)好個謝端卿, 與牡丹雲雨和諧了. 令人點個燈來, 推開方丈門, 拿住那佛印了也. (正末上, 云)被我瞞過子瞻了也. (旦兒云)却不羞殺我牡丹也.)²⁰⁾

위의 인용문은 극 중에서 해학적 喜劇性을 강하게 지닌 부분으로, 실제 무대 공연 시에는 상당한 해학적 무대효과를 지녔으리라 여겨진다. 먼저 극 중의 피도탈자인 소동파가 도탈자인 불인선사에게 白牡丹과의 결혼을 강하게 요구하자, 불인선사는 계책을 내놓았다. 곧 그는 자신의 侍從인 行者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행자가 자신의 역할을 몰래 대체하여, 白牡丹과 雲雨之情을 나누라고 요구한다. 극의 전개에 있어서 이 부분은 해학성이 가장 강한 부분으로, 극의 공연 시 관중들의 웃음을 저절로 자아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불인선사의 이러한 계책을 알지

20)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河北教育出版社, 1994, 3130-3131쪽.

못하는 소동파는 스스로 다른 계책을 꾸며낸다. 곧 소동파는 불인선사가 方丈室로 잠자리 들어가자, 白牡丹으로 하여금 몰래 따라 들어가 불인선사와 雲雨之情을 나누도록 시킨다. 그리고 그때 白牡丹이 宋代 柳永의 「雨淋鈴」을 노래하는 것을 신호로, 자신들이 쳐들어가, 불인선사가 五戒 중의 하나인 '不邪淫'을 어긴 현장을 급습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소동파는 이러한 '不邪淫'의 현장 목격을 수단으로 하여, 불인선사를 협박하면 그가 자신과 함께 환속하여 벼슬길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소동파의 이러한 계책은 도리어 불인선사의 계책에 의해 좌절되는 쓰라린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통과의례 중 전이의례의 관점에서 위의 인용문을 보면, 소동파의 계책이 실패하는 고통은 극 중에서 소동파가 겪어야 했던 귀양의 고통 및 '求不得苦'의 고통 등의 연장선 상에 있다. 「東坡夢」의 전체적인 도탈구조에서 보면, 피도탈자인 소동파가 겪어야 하는 이러한 고통은, 마치 새로운 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축적이 필요한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에서 피도탈자인 소동파가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자신의 유교적 사유를 넘어서서, 淸淨하고 神聖한 불교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겪어야 할 더 큰 고통이 남아 있는 것이다.

위에서 도탈자인 불인선사의 계책에 의해 자신의 계책이 좌절된 고통을 맞본 피도탈자 소동파는 극 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다. 그리고 이 때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에서는 피도탈자인 소동파를 도탈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특수한 방법이 사용되니, 곧 鏡頭의 사용이 그것이다. 鏡頭는 境頭 혹은 景頭라고도 하며, 극 중에서 도탈자가 피도탈자를 도탈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비현실적인 幻境이나 夢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경두는 도탈자가 피도탈자를 도탈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뜻대로 도탈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도탈자를 도탈시킬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불교도탈극인 「度柳翠」나 「忍字記」 및 「猿聽經」에서도 모두 도탈자는 극 중의 관건적인 부분에서 경두를 사용하여 피도탈자를 도탈시켰다. 「東坡夢」에서는 제2절에서부터 제3절까지 이러한 비현실적인 경두가 사용되어 도탈과정이 전개되는데,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불인선사): 大人, 몇 잔 더 하시지요. 아! 잠들었구나. 크게 잠들게 해야겠다. 花間四友야, 어디에 있느냐?

(花間四友가 旦那로 분장하고 등장): 저희들 갑니다! 사부님이 저희 넷을 부르시니, 무슨 분부가 있으신지요? (불인선사 노래한다)

【哭皇天】너희 부르는 건 다른 뜻이 없고, 각기 준비를 하자구나. 梅야, 너는 가벼이 白雪歌를 노래해라. 柳야, 너는 紫磨金²¹⁾ 술잔을 가득 채워 받쳐 들어라. 桃야, 너는 그와 베개를 같이하고 동침하려므나. 竹야, 너는 물과 물고기처럼 (그와) 친밀히 지내라. ……

(花間四友): 저희 넷은 불인선사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妓妾입니다. 사부님의 명령에 따라 특별히 술 한 잔 올리려 왔습니다. ……

(소동파): 아가씨들 춤추고 노래할 줄 아세요?

(花間四友): 저희들은 모두 할 줄 압니다.

(소동파): 수고스럽겠지만, 넷이 춤 한 번, 노래 한 번 해보시지. 내가 실컷 먹고 돌아갈 때까지. (花間四友들이 춤추고 노래한다) ……

(松神이 正末로 분장하고 笏을 들고 등장): 저는 廬山의 松神입니다. 지금 불인선사가 花間四友를 몰래 파견하여 玉春堂에서 소동파학사를 魔障²²⁾시키고 있습니다. 上帝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반드시 저를 책망할 것이니, 그 넷 유명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松神이 花間四友를 쫓아낸다)

(소동파): 신령님, 제가 여기 혼자서 술을 마시면 無聊하니, 아가씨 한 명을 남겨서 시중들게 해주세요. ……

(소동파가 놀라서 깬다): 네 분 아가씨들, 한 잔 가득 마시세요. 아, 원래 南柯一夢이었구나. 제가 배 타러 돌아가고 싶지만, 불인선사가 (이 사실을) 아마 看破했을 것 같으니, 白牡丹을 데리고 法座에 問禪²³⁾하러 한 번 가야겠다. (東坡做睡科)(正末云)大人再飲幾杯. 呀! 他睡着了, 着他大睡一覺, 花間四友安在?(旦那扮四友上, 云)妹子們走動, 師父呼喚俺姐妹四人, 有何分付?(正末唱)【哭皇天】我喚你無別意, 您四人各做準備. 梅也你輕謳着白雪歌, 柳也你與我滿捧着紫金杯, 桃也你和他共枕同眠, 竹也如魚似水. …… (四友云)俺姊妹四人, 是佛印的專房妓妾. 聽師父法旨, 特來與大人奉一杯酒. …… (東坡云)小娘子會舞會唱么?(四友云)俺姊妹們都會唱. (東坡云)有勞四位舞一回, 唱一回, 待小官吃個盡興方歸也. (四友舞唱

21) 자색(紫色)을 띤 순수한 황금. 품질이 가장 좋은 황금을 이른다.

22) 악마의 장애라는 뜻으로, 수도자가 修行하거나 精進하는 데 장애를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서는 현실정치에 참여하려는 소동파의 유교적 사유를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것을 가리킨다.

23) 禪宗의 수행자가 修行이 높은 禪師 등에게 禪門에 대해 물으면 禪師가 대답하는 것.

介) …… (正末扮松神持笏上, 云) 吾乃廬山松神是也. 今有佛印禪師密遣花間四友, 前去玉春堂魔障東坡學士. 恐上帝知道, 必然責罪小聖. 須索追趕那四個鬼頭去也呵. …… (松神做趕四友科) (東坡云) 上聖, 念小官獨自在此, 飲酒無聊, 可留一個小娘子. 等他陪奉咱. …… (東坡做驚醒科, 云) 四位小娘子, 滿飲一杯. 呀! 原來是南柯一夢. 小官欲待回舟中去, 恐怕他謝端卿勸破. 且領着白牡丹到法座上問禪, 那裏走一遭去來.)²⁴⁾

극 중에서 이제까지 피도탈자인 소동파의 공격적인 양상에 대해防禦的인 양상을 취했던 도탈자 불인선사는, 여기서부터 경두의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도탈 과정의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한다. 불인선사는 위에서 소동파가 술에 취해 잠드는 사이, 소동파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여 도탈을 진행시키는데, 이 때 등장하는 花間四友라는 네 명의 미녀들은 극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실 花間四友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精靈信仰 속의 정령들로서, 극 중에서 소동파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술을 따르는 侍女の 역할을 한다. 곧 극 중에서 소동파는 비록 비현실의 꿈속이지만, 이들 네 명의 미녀들에 둘러싸여 歡樂의 기쁨을 누린다.

불교도탈극 「東坡夢」의 제3절에서도 계속 소동파의 꿈 속에서 진행되는 경두의 수법이 이어지는데, 다소 특이한 형태로 전개된다. 제3절이 시작되자 뜻밖에도 廬山の 松神이 극의 주인공인 正末로 등장하여, 소동파가 花間四友의 미녀들과 누리던 환락의 기쁨을 없애고자 한다. 왜냐하면, 만일 소동파가 花間四友의 미녀들과 환락에 빠져 노는 사실을 上帝가 안다면, 상제가 반드시 松神을 책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 松神은 화간사우 미녀들을 소동파로부터 쫓아버리며, 이 때 소동파는 송신에게 자신이 술을 마실 때 무료하지 않도록 미녀들 중 한 명만이라도 남겨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는 소동파가 꿈 속에서 女色에 깊이 貪着되어 있는 형상을 보여준다.

제3절이 끝나면서 경두의 수법도 끝나, 소동파는 꿈 속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며, 꿈 속에서 누렸던 환락의 기쁨이 완전히 南柯一夢임을 깨닫는다. 곧 소동파는 꿈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도 누리던 환락의 기쁨이 본시 덧없는 南柯一夢임을 깨달

24)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河北教育出版社, 1994, 3132-3140쪽.

있던 것이다. 그런데 소동파가 이제껏 극 중에서 추구했던 현실 참여적인 유교적 사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록 꿈 속이었지만 환락의 기쁨이 南柯一夢이었다는 소동파의 깨달음은 그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여겨진다. 이제껏 극 중에서 소동파가 겪어야 했던 고통, 일례로 정치투쟁의 실패로 인한 귀양의 고통, 미인 계로 불인선사를 유혹하고 권유했으나 실패했던 좌절의 고통, 자신의 계책이 불인선사의 계책에 의해 막혀 성공하지 못했던 고통 등에 비하면, 환락의 기쁨이 南柯一夢에 불과했다는 깨달음의 고통은 소동파의 유가적 사유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 이러한 南柯一夢의 깨달음의 고통은 결국 소동파가 유교적 사유에서 불교적 사유로 전환하게 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극 중 이러한 경두의 사용은 전체적 도탈 과정 중에서 관건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통과이레 중 전이의이레의 핵심적 성격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불교도탈극 『東坡夢』에서 피도탈자인 소동파가 겪어야 했던 수 많은 고통들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통과이레의 참가자가 전이의이레의 과정 중에 겪어야 했던 고통의 의미에 대해, 엘리아데는 다음과 같이 그의 『신화·꿈·신비』에서 종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고문의 의미는 무엇일까?모든 전통 사회에서 고통은 의례적인 가치를 갖는다. 고문은 초인적 존재에 의해 실행된다고 간주되며, 희생자의 영적인 변모에 그 목적이 있다.정신적 고통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고통은 모든 가입의례에 필요불가결한 고문과 유사하다. 원시인은 병을 초자연적인 선별의 결과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병은 가입의례의 시험으로 간주되었다. 다시 태어나려면, 즉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죽어야만' 했다. 이전의 자신과 세속적인 조건은 죽었다.²⁵⁾

위에서 엘리아데는 모든 전통 사회에서의 고통이 의례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여겼는데,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에서 피도탈자인 소동파가 겪은 여러 고통 또한 의례적인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東坡夢』에서 소동파가 겪은 고통은

25) M. 엘리아데 저, 강유섭 역, 『신화·꿈·신비』, 도서출판 숲, 2006, 252-254쪽.

결국 불교적인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곧 위에 의하면, 「東坡夢」에서 소동파가 겪은 고통은 불교적인 영적 변모에 그 목적이 있다. 소동파는 불교적 사유의 인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하여, 이전에 자신이 지녔던 세속적 유교적 사유가 '죽어야만'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 것이다.

3. 통합의례

통합의례는 수많은 고통 등의 시련을 겪은 통과이례의 참여자가 새로운 모습의 인간으로 재탄생하여 도달하게 되는 최후의 단계이며, 전이의례는 바로 이 통합의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준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통과이례 중 통합의례의 성격을 종교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엘리야데의 『성과 속』 중의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가입식의 각분-세속적인 조건에서는 죽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세계, 신들의 세계에서 재생하는—은 고도로 발달된 종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명한 예는 인도의 제의에서 볼 수 있다. 그 목표는 사후에 천상으로 올라가 신들과 더불어 살거나 神性を 획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초인간적인 존재양식을 획득한다.²⁶⁾

위에서 엘리야데는 통과이례의 참여자가 세속적인 조건에서는 죽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신들의 세계에서 재탄생하는 통합의례의 목표는, 사후에 천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神性を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곧 다른 말로 하면, 통합의례의 목표는 초인간적인 존재양식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통합의례의 모습이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6) M. 엘리야데 저,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178쪽.

(소동파가 白牧丹을 데리고 등장): 牧丹아, 불인선사가 法座에서 問禪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그의 말문이 막히도록 할 테니, 너도 가자.

(白牧丹): 예, 알겠습니다.

(소동파): 선사님, 제가 특별히 問禪하러 왔습니다.

(불인선사): 빨리 말하세요!

(소동파): 선사께선 이제껏 예리하게 일깨웠건만, 저는 단지 한가로이 文字禪 하러 왔네요.

(불인선사): 葛藤禪²⁷⁾과 老婆禪²⁸⁾을 이어서 깨뜨리고, 질남비를 깨뜨려 잔금이 바닥에까지 가야지요.²⁹⁾

(소동파): 그에 의해 말문이 막혀버리는구나. 牧丹아, 네가 問禪하렴.

(白牧丹): 선사님, 제가 특별히 問禪하러 왔습니다.

(불인선사): 빨리 말하세요!

(白牧丹): 제가 왜 이 곳에 왔냐면요, 풍류를 동경하여 다만 선사님께 시집가기 위해서죠.

(불인선사): 그대는 본시 기녀가 아니며, 佛門의 弟子가 될 수 있지요.

.....

(白牧丹): 과연 진실한 스님이군요. 선사님의 말문을 막게 할 수 없네요. 사부님, 칼을 빌려주세요. 삭발하여 스님이 되어, 사부님을 따라 出家 하겠어요.

【川撥棹】 어젯밤 玉春堂에서, 소동파와 함께 노닐도록 한 것은,, 모두 내가 사용한 계책으로, 그대를 魔障시키려는 것이었다요.

(소동파): 선사께선 이제껏 諧謔이 넘쳤건만, 준수하시다고 花間四友들이 자랑하네.

(불인선사): 높아서 타는 밝은 촛불이 미녀들을 비추건만, 불빛은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네.

(소동파): 과연 진실한 스님이어서, 선사님의 말문을 막게 할 수 없네요. 저는 오늘부터 懺悔하며, 진실로 佛家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鴛鴦煞尾】 오늘 이후로 人相·我相·衆生相³⁰⁾을 깨우쳤구나.정말

27) 선(禪)에서 '갈등(葛藤)'이란 언어·문자를 가리킨다. '갈등선(葛藤禪)'이란 이리저리 언어문자로 선을 풀이,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文字禪'이라고 한다.

28) 老婆처럼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이 세세하게 알려주어서, 수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公案이나 話頭를 參究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해야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9) 歇後語로서, 끝까지 캐고 따져 眞相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鑿到底의 '鑿'은 '問'과 발음이 같은 것으로, 끝까지 캐고 따지는 것을 가리킨다.

30) 我相: 오온(五蘊)이 화합하여 생긴 몸과 마음에 참다운 나 자신이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 人相: 사람들을 구분, 또는 분별하여, 잘생겼다 못생겼다, 또 마음에 든다 않든다 하는 등의 마음. 衆生相: 부처와 중생을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스스로

로 色卽是空이도다. ((東坡領牡丹上, 云)牡丹, 謝端卿在法座上問禪, 我去問倒了他, 你就過來. (旦兒云)是, 曉得. (東坡云)上告我師和尚, 蘇軾特來問禪. (正末云)速道. (東坡云)佛印從來快開劈, 蘇軾特來閑料嘴. (正末云)葛藤接斷老婆禪, 打破沙鍋問到底. (東坡云)可被他說倒了. 牡丹, 你過去問禪. (旦兒云)上告我師和尚. 牡丹特來問禪. (正末云)速道. (旦兒云)我白牡丹因何到此? 慕風流特來嫁爾. (正末云)你本不是妓館孫兒, 堪做俺佛門弟子. ……(旦兒云)果然是眞僧, 問他不倒. 告師父借金刀一把, 削髮爲尼, 跟師父出家. ……【川撥棹】想昨夜在玉春堂, 與東坡曾共賞. ……都是咱使的伎倆, 故將你廝魔障. ……(東坡云)佛印從來多調笑, 到被花枝誇俊俏. (正末云)高燒銀燭照紅妝, 燈光不把自身照. (東坡云)果然是眞僧, 問他不倒. 蘇軾從今懺悔, 情願拜爲佛家弟子. ……【鴛鴦煞尾】從今後識破了人相我相衆生相. ……唱道是卽色卽空.³¹⁾

위에서 도탈자인 불인선사는 禪宗의 수행자가 高僧이나 禪師와 問答하는 과정인 問禪의 방법을 통하여 피도탈자인 소동파와 白牡丹을 도탈시키고 있다. 그리고 불인선사는 여기에서 問禪의 과정 중에 선종의 機鋒의 방법을 통하여 소동파와 白牡丹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고 있다. 機鋒은 창이나 칼 등의 날카로운 끝부분처럼, 禪僧들이 대화할 때 상대방을 깨우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리한 언어를 의미한다. 기봉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에게 佛理를 숙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것은 확철대오한 후 佛門에 귀의하도록 하는 것이다.³²⁾ 위에서 먼저 피도탈자인 소동파는 자신의 文字禪을 자랑하고 싶었으나, 文字禪과 老婆禪을 깨뜨려서, 철저히 깨묻고 따져 존재의 진상을 밝히어야 한다는 불인선사의 機鋒의 대답에 말을 더 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혀버린다. 문자선은 이리저리 언어문자로 선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적인 參究는 하지 않고 지식과 학식을 동원하여 고칙(古則)이나 공안(公案), 화두를 풀이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수행과 실제적인 체험을 통하여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는 진실한 禪에 이르지 못한다. 또 선승이 수행자를 교육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수행자로 하여금 스스로 공안이나 화두를 참구하여

열등감을 갖거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항상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

31)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河北教育出版社, 1994, 3142-3145쪽.

32) 荏攀, 『試論元代佛教雜劇中的禪宗文化』, 『連運港職業技術學院學報』第22卷 第2期, 2009年 6月, 62쪽.

깨달음을 얻도록 해야 하는데, 노파선은 그만 노파심이 간절한 나머지 직접 실제적 참선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까지 다 알려 주어 버린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소동파와 함께 『東坡夢』에서 피도탈자의 신분으로 등장한 白牧丹은 불인선사와의 몇 마디 機鋒的 문답 후에, 자신의 말문이 막혀버리고 곧 크게 깨달아 삭발을 하고는, 불인선사를 따라 출가한다. 白牧丹이 佛門에 비교적 쉽게 귀의한 것에 비하면, 극 중 소동파는 佛門에 귀의하는 데 機鋒的 문답을 더 나누어야 했다. 위에서 보았던 첫 번째 기봉적 문답을 통하여, 소동파는 자신이 선종의 문답으로는 불인선사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소동파는 곧바로 자신이 이제껏 지켜왔던 유가적 사유를 버리고 불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불인선사의 두 번째 기봉적 문답, 특히 '불빛은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네(燈光不把自身照)' 부분을 듣고는, 소동파는 일순간 色空의 이치를 깨달아 불문에 귀의한다. 이로써 소동파는 극 중에서 자신이 세속적 현실에서 추구하던 유교적 사유를 버리고, 대신 청정하고 신성한 불교적 사유 속으로 들어가는 도탈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 불인선사는 불문에 귀의한 소동파가 불가의 기본 교리인 我相과 人相 및 衆生相을 看破하고, 色卽是空이란 불교의 근본적 이치를 깨달았다고 칭송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불교적 세계로의 도탈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엘리아데는 그의 『성과 속』에서 통과의례 참여자의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재탄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종교론적으로 말하고 있다.

원시 사회의 인간들이 자연적 생존의 단계에 '주어지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진정한 의미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그는 이 최초의 (자연적) 생명으로는 죽어야 하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더 높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사람은 '자연적' 인간을 넘어서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폐기시킬 때에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된다. 왜냐하면 가입식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역설적이고 초자연적인, 죽음과 부활 혹은 재생의 체험이기 때문이다.³³⁾

33) M. 엘리아데 저,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170-171쪽.

엘리아데는 위에서 통과의례 중 통합의례의 구체적인 의미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연의 생존의 단계에 주어지는 ‘자연적’인간을 넘어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더 높은 생명으로 재탄생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곧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존재양식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엘리아데의 종교론적 논의의 관점에서 보면, 「東坡夢」의 작자가 세속적인 유교적 사유를 지닌 소동파로 하여금 청정하고 신성한 불교적 세계로 귀의시킨 점은, 소동파로 하여금 ‘자연적’인간을 넘어서 色卽是空의 불교적 이치를 터득한 새로운 종교적 존재양식으로 재탄생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원잡극 「東坡夢」은 宋代의 문인인 소동파가 왕안석과의 정치투쟁에서 실패한 후 귀양가는 도중에 자신의 ‘同窓故友’인 佛印禪師를 만나, 정치적 再起를 도모했으나 결국에는 佛法에 귀의한다는 내용의 종교극이다. 극 중에서 소동파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白牡丹이라는 妓女를 사용하는 美人計로써 불인선사를 유혹하고 還俗을 권유했으나 실패한다.

「東坡夢」은 극의 구성과 줄거리에 있어서 불교도탈극이다. 도탈극에는 반드시 극 중에 도탈자와 피도탈자가 등장해야 하고, 극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도탈자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도탈자를 도탈시키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도탈의 과정 중에 피도탈자는 반드시 여러 가지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데,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은 이러한 도탈극의 핵심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통과의례는 민속학자로서 주로 프랑스에서 활약한 쟈넵(Genep)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쟈넵에 의하면, 개인은 탄생과 결혼 및 죽음 등의 중요한 시기에 사회 내에서의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면서 일정한 의례를 시행하는데, 이것을 통과의례라고 불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半文明的인 정신세계에서는 모든 행

위들이 종교적 神聖함과 철저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통과례는 일반적으로 형식상에서 볼 때, 분리의례-전이의례-통합의례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내용상에서 볼 때 의례의 참여자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은 후 새로운 존재양식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핵심적 성격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교도탈극인 「東坡夢」은 비록 형식상에 있어서 분리단계가 생략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도탈구조와 그 내용에 있어서 통과례의 핵심적 성격과 부합하는 것이다.

「東坡夢」의 도탈과정은 통과례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불교도탈극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이의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1절부터 제4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전이의례에 속한다. 그리고 도탈의 핵심적 내용은 세속적인 현실정치에 참여하려는 소동파의 유교적 사유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거친 후 청정하고 신성한 불교적 사유로 변화되는 것이다. 먼저 극 중의 제1절에서 소동파는 정치투쟁의 실패로 인한 귀양의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동파는 기녀인 白牡丹을 데리고 불인선사를 찾아가, 불인선사가 白牡丹과 결혼하여 자신과 함께 벼슬길에 나아가자고 유혹하고 권유했으나 실패하는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불교적 인생관에 의하면 소동파의 이러한 고통은 소위 八苦 중의 求不得苦에 해당되었다. 극의 제2절에서 소동파가 계속 불인선사에게 白牡丹과 결혼해줄 것을 요구하며 계책을 사용하자, 불인선사는 자신의 시종인 行者에게 白牡丹과 雲雨之情을 나눌 것을 부탁하는 계책을 써서 소동파가 좌절의 고통을 떠안게 만든다. 그리고 도탈자인 불인선사는 피도탈자인 소동파를 도탈시키기 위하여 소위 鏡頭의 수법을 사용하여, 소동파의 꿈 속에 花間四友라는 네 명의 미녀들을 등장시킨다. 꿈속에서 소동파는 이들 미녀들과 歡樂의 기쁨을 누렸으나, 꿈에서 깬 소동파는 이러한 환락의 기쁨이 南柯一夢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소동파에게 닥치는 이런 연속적인 고통은 전이의례의 핵심적 성격과 부합하는 것이며, 통과례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재탄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의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다.

불교도탈극 「東坡夢」의 도탈과정 중 통합의례적 양상은 제4절에서 소동파와

불인선사의 問禪의 방식을 통하여 나타났다. 소동파는 불인선사와의 問禪을 통하여 色卽是空의 불교적 세계관을 일순간 깨달았는데, 극 중에서는 禪僧들이 대화할 때 상대방을 깨우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리한 언어인 機鋒의 수법이 사용되어, 소동파가 佛理를 깨닫고 佛門에 귀의하였다. 그리고 현대의 종교학자인 엘리 아테에 의하면, 소동파의 이러한 佛門에의 귀의는 자연적 인간을 넘어서서 완전한 인간을 이루고자 하는, 곧 새로운 존재양식의 획득을 의미하였다.

〈參考文獻〉

- 溫小騰, 「淺析元雜劇中的度脫劇」, 『大慶師範學院學報』第26卷 第4期, 2006.
- 李惠綿, 「論析元代佛教度脫劇」, 『佛學研究中心學報』第6期, 臺灣, 2007.
- 曹國榮, 「元雜劇佛禪義理芻議」, 『社科縱橫』第22卷 8期, 2007.
- 荏攀, 「試論元代佛教雜劇中的禪宗文化」, 『連雲港職業技術學院學報』第22卷 2期, 2009.
- 羅永忠, 「試論元雜劇佛道劇中對佛教道教的批判」, 『全國中文核心期刊 藝術百家』第3期, 2003.
- 鄭傳寅, 「論元雜劇中的佛教劇」, 『武漢大學學報』第66卷 1期, 2013.
- 陳洪, 「元雜劇與佛教」, 『文學評論』, 2005年 6期.
- 福滿正博, 「試論元雜劇中的度脫劇」, 『戲曲研究』第46輯, 文化藝術出版社, 1993.
- 毛小雨, 「元雜劇中佛教戲研究」, 『戲曲研究』第31輯, 文化藝術出版社, 1989.
- 楊毅,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青木正兒 著, 隋樹森譯, 『元人雜劇序說』, 臺灣, 長安出版社, 1976.
- A 반 진넨 著, 金京秀 譯, 『통과의례』, 서울, 을유문화사, 1994
- M. 엘리아테 저, 이은봉 역, 『성과속』, 서울, 한길사, 1998.
- 빅터 터너 지음, 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6.
- 容世誠 著, 『戲曲人類學初探』, 北京, 光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中文摘要〉

元雜劇「東坡夢」，作者是元代前期劇作家吳昌齡。從內容上看，「東坡夢」是佛教度脫劇。作品的核心內容是劇中被度脫者蘇東坡被度脫者佛印禪師的種種安排來度脫的故事。在元雜劇的諸多劇種中，度脫劇算得上是一個獨特的劇種。雖然所占比例不大，受到關注不多，但具有相當的代表性，置得進一步深入研究。「東坡夢」是儒佛兩種思想沖突所導致的悲劇。蘇東坡劇中原來具有強烈的儒教思想，他有強烈的入世思想，可是由於政治鬥爭的失敗，蘇東坡不得不被貶謫到黃州。

通過儀禮是西方民俗學者使用的用語。通過儀禮的最基本的目標是通過儀禮參與者的在社會上的再誕生。沒有再誕生，就沒有通過儀禮。再誕生是通過儀禮的核心部分。一般的說，通過儀禮的再誕生具有宗教性的意義。

一般來說，通過儀禮都包含三個階段，也就是分離階段-轉移階段-統合階段。在三個階段中，一般來說，轉移階段是核心的部分。在佛教度脫劇「東坡夢」里面，沒有分離階段的部份。劇中大部分的故事都集中在轉移階段部份。這樣，通過儀禮和佛教度脫劇「東坡夢」的結構和核心性格一樣。所以本論文用通過儀禮的觀點來分析度脫劇「東坡夢」的度脫過程和其意義。

通過儀禮的第二階段是轉移儀禮。作品中的大部分情節都屬於轉移儀禮。在轉移儀禮的過程中被度脫者蘇東坡經歷各種痛苦和試煉。首先在這個過程中被度脫者蘇東坡訴說被貶謫的痛苦。為了對抗王安石，被度脫者蘇東坡尋找自己的同窗故友佛印禪師。這時候，他領着妓女白牡丹訴說自己的痛苦。然後跟佛印禪師說和白牡丹結婚離開寺廟。可是佛印禪師當然不同意。所以蘇東坡的生活充滿着痛苦。在第二折被度脫者蘇東坡想辦法讓佛印禪師破戒還俗。可是他的計策沒有成功。在這樣的時候，度脫者佛印禪師使用了非常強烈的方法。他使用了所謂鏡頭的手法。在所謂鏡頭的手法當中，出現了四個美女叫作花間四雨。鏡頭的手法用在蘇東坡的夢里。在四個美女叫作花間四雨的陪同下，劇中被度脫者蘇東坡享受了歡樂的喜悅。可是他從夢中醒過來才知道，那樣的歡樂的喜悅是南柯一夢。在這樣的过程中被度脫者蘇東坡經歷了很多痛苦和試煉。

通過儀禮的第三階段是統合儀禮。佛教度脫劇「東坡夢」的統合儀禮的樣子出現在第四折。度脫者佛印禪師用問禪的方法來度脫了被度脫者蘇東坡。在這樣的过程中，作者在劇中使用了禪宗的機鋒的手段。在這樣的時候，蘇東坡才大悟了佛教色即是空的道理，情願歸依佛門。

關鍵詞：「東坡夢」，度脫劇，通過儀禮，轉移儀禮，統合儀禮

〈Abstract〉

Structure of Transcendence of Yuan Zaju 『Dong Po Mong』: Rite of Passage

Kim, Kwang Young

『Dong Po Mong』 is drama of Yuan dynasty. The story is about of Su Dongpo. He lived in Song dynasty. Main story of 『Dong Po Mong』 is Su Dongpo how to change his religion. He suffered many experience and trial. Since then he believed in Buddhism.

The structure of 『Dong Po Mong』 is similar to rite of passage. Rite of passage is a celebration of the passage which occurs when an individual leaves one group to enter another. It involves a significant change of status in society. In cultural anthropology the term is the Anglicisation of rite de passage, a French term innovated by the ethnographer Arnold van Gennep in his work *Les rites de passage*, 'The Rites of Passage.' The term is now fully adopted into anthropology as well as into the literature and popular cultures of many modern languages.

Key Words: Dong Po Mong, Rite of Passage, Yuan Zaju, Buddhism, Su Dongpo

이 논문은 2016년 4월 5일에 접수되어 2016년 5월 9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5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